

STORY

03

희망이 움트다,
행복이 피어나다



솔북이 에듀파크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만 멈춰야 할 때를 가르쳐 주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피아노 치는 법은 배우지만 연주에 귀 기울이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들은 많지 않으며, 법관이 되라고 하긴 쉽지만 법과 정의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솔북이 에듀파크는 특별하다.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일상의 습관부터 예술을 대하는 삶의 자세, 법과 정의를 분간하는 넓은 시야까지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이기 때문이다.

범방산 기슭, 탁 트인 낙동강과 구포의 전경과 어울린 솔북이 에듀파크는 아이들의 솔 빛 꿈으로 넘실댄다.

안전습관 그린라이트, 구포어린이교통공원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유치원이나 학교를 오가며 도로를 지날 때나 골목길에서 뛰놀 때 일상의 매 순간 아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교통교육은 담당 강사의 말을 통해 20~30분 진행되는 것이 고작이다.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은 딱딱한 학습이 아닌 즐거운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실제와 똑같이 생긴 횡단보도에서 올바르게 길을 건너보고 안전벨트체험을 통해 벨트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배운다. 3D와 4D 영화 체험, 미니 전동차 운전 등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들은 놀이와 교육의 경계를 없앤다.

야외 공원의 너른 잔디밭에선 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도시락을 먹으며 소풍을 즐길 수도 있다.

문화예술의 요람,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구포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단지 앞에는 갈매기 날개를 형상화한 사선 모양 지붕의 건물이 서 있다.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열정이 커가는 곳,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이다.

각각 1,000여 석과 200여 석을 갖춘 대극장과 소극장, 국악실, 기악실, 도자 공예실, 애니·영상실, 회화실 등으로 구성된 체험학습실로 구성된 이곳은 문화예술을 접하는 데 최적화된 공간이다. 토요일가족예술체험교실, 일요시네마극장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의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과 전시도 상시로 열린다.

단기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꿈을 키워가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 연습 공간이나 예술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학교에선 접하기 힘든 예술 인문학 관련 특강과 진로강연도 많은 학생에게 유익한 소양과 동기부여가 되어 주고 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이 밖에도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은 시 전역에서 선발한 단원들로 이뤄진 부산예문학생합창단, 공연팀 예문쇼콰이어를 운영하며 세상에 한 가락 노래와 몸짓을 더하고 있다.

법과 정의의 배움터, 솔로몬로파크

자유, 지혜, 정의.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솔로몬 로파크는 이러한 가치들

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깨칠 수 있는 법 교육 테마공원이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현명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듯, 이곳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정의를 아는 지혜와 그것을 견지하는 용기를 배운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내부 체험시설

1층에는 국내 유일의 법 관련 도서관이자 북카페로 3,000권 이상의 법 서적을 보유한 법어울터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기획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2층에 있는 법치세상관에서는 법치의 원리와 과정을 세세하게 배울 수 있다. 모의 국무회의를 통해 전자투표로 법률이 제정되는 입법 시스템을 배우고, 모의재판에서는 역할극에 참여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문채취와 거짓말 탐지기 등의 수사방법을 체험할 수 있고 형벌의 종류와 보호처분, 위치추적 감독장치와 교도소 생활 체험 등을 통해 처벌과 인권, 형벌과 교화

의 양면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다. 실내 놀이터인 어린이 법쟁마루는 범인을 잡아라 등 법 관련 게임을 통해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의 힘을 기른다.



환경사랑홍보교육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다, 환경 사랑홍보교육관

2016년 새로 문을 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신청사 1층에는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이 들어섰다. 이곳은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즐거운 놀이로 이해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전시와 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커다란 지구본 모형 속의 기후대기존에서는 영상과 바람, 연기, 열 등의 특수효과를 통해 기후의 변화 과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고, 물환경존에서는 매일 쓰는 화장실의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의 흐름을 LED 패널의 불빛을 통해 따라가 볼 수 있다. 토양환경존에서는 땅에 사는 생물들과 이들을 괴롭히는 매립 쓰레기들을 보며 우리가 매일 밟는 땅도 살아 숨 쉬는 자연임을 깨닫게 된다. 또 자원순환존의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잘 버리면 자원이 되는 재활용의 가치를 배운다. 생활환경존의 층간소음과 빛 공해 체험은 자연뿐 아니라 일상의 환경을 쾌적하고 순리에 맞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려 준다. 이렇게 주제별 5개 구역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각 분야의 미션을 수행하면 배지를 얻게 되고 ‘환경 특공대’가 된다. 이밖에도 친환경 작품 만들기, 환경



환경사랑홍보교육관 내부 물환경존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은 자라나는 아이에게 자신뿐 아니라 주변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다.

각기 다른 목적과 가치를 발하는 네 공간을 이어 만든 단 하나의 특별한 공간. 사랑하는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한나절을 보내고 싶다면, 솔북이 에듀파크야말로 최고의 장소가 되어줄 것이다.

- 구포어린이교통공원 : 북구 낙동북로 687 / 051-309-4805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 북구 낙동북로 737-1 / 051-366-8114
- 부산솔로몬로파크 : 북구 낙동북로 755 / 051-330-4000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 051-366-3605

북구문화빙상센터와 인공 암벽장

얼음판 위의 날선 자유에 몸을 맡기는 것, 스스로의 손힘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법을 배우는 것, 생각만 해도 짜릿한 경험이다.

실내스케이트장과 인공 암벽장을 갖추고 있는 덕천에서는 이와 같은 체험이 일상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클래식과 국악을 넘나드는 문화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 앞에 유실되어 가는 옛 기억을 지켜내고 있는 등, 덕천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두루 책임지고 있는 고마운 공간이다.

문화 체육활동의 메카, 북구문화빙상센터



북구문화빙상센터 입구

구포왜성 맞은편에 자리 잡은 북구문화빙상센터는 복합 문화체육시설로서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북구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속 단비와 같은 공간이다. 구포왜성의 지성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탓에 건립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완공이 잠깐 지체되기도 했지만, 결국 2005년 4월에 완공되어 그해 7월에 개관했다.

북구문화빙상센터는 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 입구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는 하루 최대 1,6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국제 규격의 실내 빙상장이 자리하고 있다. 겨울이 돼도 눈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부산에서 일 년 내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이라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린다.



실내 빙상장

북구문화빙상센터 입구의 왼편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자리하고 있다. 1층의 유물전시실에서는 삼한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걸친 분묘 유물 40여 점이 북구의 유구한 역사를 뽐내고 있으며 일반전시실에서는 개인 및 단체의 정기 작품전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내의 여러 학교나 학원의 졸업 작품 전시회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몫이다.

2층에 올라서면 100인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324석 규모의 공연장이 마련돼 있다. 특히 이 공연장은 우수작품의 초청공연이나 클래식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1층 구포왜성 유물전시실



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

이 밖에도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등의 문화단체가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발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의 상주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부산낙동교향악단이 정기적으로 연주회와 국악 강습을 하고 있다.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즐거움, 북구 인공 암벽장

북구문화빙상센터 인근의 덕천생활체육공원은 족구장, 인공 암

벽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지역 주민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단연 실내·외 인공 암벽장이다. 덕천생활체육공원의 실외 암벽장은 국제 공인규격(15mx16m)에 부합하는 것으로, 암벽 등반 훈련 시설 및 전국 클라이밍대회



덕천생활체육공원 실외 인공 암벽장

장소 등으로 활용 중이다. 실내 암벽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초보자를 위한 체험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 암벽장에는 클라이밍 전문가가 상주해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 암벽 등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

역사 위에 문화를 꽃피우다, 북구낙동문화원

북구는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북구낙동문화원은 이러한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

지역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낙동문화원이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은 1998년이지만, 실상 그보다도 20년이나 전부터 활동해 온 ‘청구회’를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지역 청년회였던 청구회는 문화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북구에 문화적 호흡을 불어넣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이후 낙동향토문화원을 거쳐, 1995년 비로소 낙동문화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북구 최대의 문화예술축제인 낙동민속예술제를 주관하는 것도 낙동문화원이다. 1999년에는 3·1운동 80주년을 맞아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연례행사로 정착시켜 지역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로 자리 잡게 했다. 또한, 낙동문화원은 구포대리지신밟기, 구포장 타령, 감동진별신굿, 대리천 제방 쌓기 등 다양한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낙동문화원은 낙동강 물길을 따라 피어난 문화의 꽃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북구문화빙상센터 : 북구 금곡대로 46번길 50 / 051-309-4681
- 부산북구낙동문화원 : 북구 금곡대로 46번길 50 / 051-362-8718
- 덕천생활체육공원(인공 암벽장) : 북구 덕천동 457-49 일원 / 051-309-4885

부산어촌민속관과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경부선 화명역 맞은편에는 부산어촌민속관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선 강물과 함께해 온 어촌 사람들의 삶과 더불어 굽이쳐 온 낙동강의 옛이야기,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삼 느낄 수 있다. 부산어촌민속관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역사와 과학을 아울러 더 넓고 먼 곳을 보는 힘을 길러주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다.

물길 따라 이어져 온 전통을 간직하다

부산어촌민속관은 2007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분관으로 개관했다. 민속관은 해양수산도시인 부산 어촌문화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통문화를 향유하며, 다음 세대에 해양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자는 귀중한 취지를 담고 있다. 지상 3층으로 이뤄진 민속관은 각각 낙동강 민물고기 전시관과 기획전시실, 낙동강어촌민속실, 부산어촌민속실로 꾸며져 있다.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어촌문화 여행을 테마로 민속관 곳곳에는 낙동강을 터전 삼아 살아온 옛 북구 사람들의 삶이 소개되어 있다. 종합전시된 많은 유물과 민속자료는 어촌의 시대별 어로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생생히 전달한다.

민속관 내부로 들어서면 사람과 물자로 발 디딜 틈 없이 복적거렸던 감동진 나루터 모형이 한눈에 들어온다. 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노란 돛을 힘차게 펄럭이며 영남의 물류를 조달했던 황포돛배도 반갑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육소장망(六艘張網)을 재현해 놓은 모형이



부산어촌민속관

전시되어 있다. 여섯 대의 선박이 넓은 그물을 친다는 뜻의 육소장망은 경남지역의 전통적인 승어잡이 방식이다. 먼저 눈이 좋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망수가 돼 바다가 흰히 내다보이는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간다. 밑에선 여섯 대의 배에 나눠 탄 어부들이 육각 대형을 이루고 그물을 넓게 편다. 승어 때가 그물 위를 지날 때 언덕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망수가 재빨리 신호를 보낸다. 신호에 맞춰 일제히 그물을 들어 올리면 그야말로 승어를 때로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이다. 한 번의 그물질에 많게는 2만여 마리까지 잡히곤 했다.

또 다른 전통 어획 방식으로 후리가 있다. 후리는 썰물 때 그물을 쳐 물이 차면 끌어당기는 고기잡이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깊은 물에 있는 고기까지도 끌어 올릴 수 있다. 과거엔 고기가 많아서인지 일손이 부족해서인지 마을의 학생들까지 모여 후리 당기는 것을 도



부산어촌민속관 내부 전시실의 옛 감동진 모형

와주고 고기를 나눠 먹었다고 한다.

어촌민속관은 이처럼 낙동강과 더불어 살아온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민속관 밖으로는 주변 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가 펼쳐져 있어 실내 관람에 지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어촌민속관에서 낙동강이 품어온 지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면, 이번엔 강물을 직접 만나보는 건 어떨까? 어촌민속관 맞은편에는 부산시 낙동강 에코버스 정류장이 자리해 있다. 에코버스의 노선은 낙동강 물길을 따라 어촌민속관과 화명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을 지나 을숙도로 이어진다. 어촌민속관 관람에 에코버스 여행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낙동강의 면면을 직접 만나는 매력적인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 손으로 되살리는 지구

어촌민속관 옆으로 나란히 자리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체험 교육이 시행된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체험관은 개관 취지에 걸맞게 빗물 재활용시설, 지열 활용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관 자체가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건축물인 셈이다.

크게 여덟 구역으로 구성된 교육관은 주 관람객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가득하다. 먼저 영상관에서 ‘탄소 몸살, 지구가 열이 나요’ 영상을 시청한 후, 탄소를 줄여 지구를 구하는 모험을 시작한다. 개인 카드를 등록한 뒤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는 게임과 놀이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아이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맑아진 지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린스쿨에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기후변화 신문 만들기, 천연염색, 조물락 비누공예, 갈대 체험, 대천천 생태탐방 같은 에너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및 생태 환경과 관련한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하와 옥상에서는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원리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환경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입장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곳에서의 체험은 배움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어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학적 인식과 자연의 중요성을 알려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부산어촌민속관** : 북구 학사로 128 / 051-363-3333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 북구 학사로 118 / 051-309-6291

문화예술플랫폼

역사는 먼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도 가까운 것, 낱알의 삶과 이야기의 점철이라. 문화예술플랫폼 내에 자리한 근대역사관은 북구 사람들이 만들어 낸 북구 역사의 지류를 보여 준다.

걸음걸음 이어지는 어제의 이야기

구포시장에서 구포역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구포만세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굴다리가 나온다. 실상 구포 근대역사에 관한 전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포의 옛 모습, 한국전쟁과 구포국수에 관한 사진과 글귀들을 읽으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구포장터 3·1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통로가 나오고 이곳을 지나면 만세거리에 접어든다. 벽마다 함성을 내지르는 듯 생생한 벽화로 가득한 이곳은 일제강점기 구포를 가득 채웠던, 애국심이 하나하나 녹아 있는 거리다.

구포만세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플랫폼



만세거리가 끝나는 지점, 고풍스러운 흰 울타리와 빨간 손바닥 간판을 내건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북구의 근대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자리한 문화예술플랫폼이다.

북구의 빛바랜 기억을 되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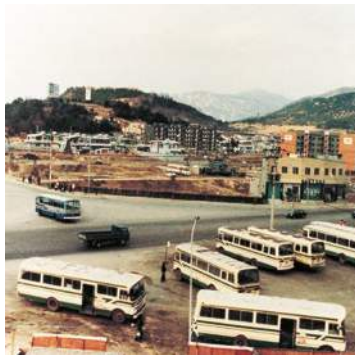
플랫폼 1층, 북구근대역사관의 전시는 북구의 이력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양주, 양산, 동래를 거쳐 부산에 속한 지금까지 땅은 언제나 제자리였음에도 관할과 지명은 부지런히 바뀌어 왔다.

지역의 옛 사진들을 보며 현재의 모습을 겹쳐 본다. 지금은 변화한 화명, 덕천 일대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실감한다.

물자와 사람이 드나들던 구포나루와 구포역, 낙동강 최초의 교량이었던 구포교, 모두가 헛헛했던 시절 든든



옛 구포 일대의 모습



옛 덕천교차로 일대의 모습

한 한 끼가 되어준 구포국수까지 구포지역의 지난 이야기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관문이었던 구포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시대에 맞섰다. 일본 자본의 경제 장악으로 조선인은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았던 시기에 구포은행을 세웠고 우리의 말과 글, 교육의 자주성을 지켜내기 위해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인 구포사립구명소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한 줌 재가 된 간밤의 온기와 그 고마운 가루를 모아 다시 연탄을 만들던 틀, 화로에 달군 솥을 넣어 사용하던 굴뚝 다리미까지 전시된 물건 하나하나에서 옛 북구 사람들의 삶의 자락을 엿본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곳

문화예술플랫폼 곳곳에 전시된 입주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색색이 향긋한 천연비누, 고급스러운 가죽공예 제품들과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모양새의 봉제 인형들, 나무로 만든 인테리어 소



1층의 입주 작가 창작 및 전시 공간

품들. 하나같이 개성이 담뿍 담긴 핸드메이드 제품들이다.

1, 2층에 마련된 입주 작가 창작 공간은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자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강좌, 공연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옥상은 야외작업장이자 주민 휴식 공간으로, 주차장은 '우리 동네 목공소'라는 이름의 목공예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플랫폼은 다양한 체험 강좌도 진행하고 있어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도 특별한 추억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문화예술플랫폼 지하의 목공예 창작 공간

문화예술플랫폼의 문화공간은 일상의 손짓과 예술의 경계를 없앤다. 어제의 문화가 오늘의 역사가 되었듯, 오늘의 삶과 예술은 곧 내일의 역사가 될 것임을 알기에 더욱 소중한 공간으로 다가온다.

● 문화예술플랫폼 : 북구 구포만세길 113 / 051-333-5567

북구의 도서관

북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이 모여 있는 지역 중 하나다. 큰 공공도서관들은 물론, 동네마다 한 두 개씩 작은 도서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북구의 도서관은 밝게 빛나는 작은 희망들을 유독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책 속에서 별과 파랑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북구는 그 어떤 곳보다 큰 내일이 자라는 곳이다.

고래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다, 구포도서관

구포도서관은 1983년에 개관하여 2006년에 현재의 자리로 신축 이전하면서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구포도서관

구포도서관은 이전한 첫해에 유아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유아 북 스타트’의 경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독서 문화 운동이며, 부산지역의 24개월 이하 영아들에게 무료로 그림책을 나눠 주고 지속해서 독서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이들이 책을 친근히 여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베이비 요가’, ‘동화 들려주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소외 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종이접기, 미술 치료, 독서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이들이 평등하게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포도서관은 12,000여 권의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를 비롯한 총 28만여 권의 도서와 2만 9천여 점의 비도서, 380여 종의 정기



구포도서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숲길

간행물을 갖추고 있다. 입구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 ‘고래들의 노래’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그림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두 개로 나뉘어 있는 큰 규모의 열람실은 언제나 공부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열린배움터 바깥의 하늘정원으로 나가면 나무가 우거진 숲길이 나 있어 공부하다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 준다.

디지털 지식과 정보의 요람, 북구디지털도서관

북구디지털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2년에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내에 세워졌다.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도서관이 들어선 것은 부산광역시 북구가 처음이다.

도서관 1층에 들어서면 오늘의 세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신문 열람대를 메우고 있다. 오른편 안쪽에는 알록달록 키 작은 책상을 갖춘 어린이실이 동화책으로 가득하다. 2층은 간행물과 각종 도서를 비치해 둔 종합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디지털 도서관답게 다양한 DVD 자료 열람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도 갖추고 있다. 3층 시청각실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람과 음악 감상,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산교육장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양강좌실은 만덕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이 채워지는 공간이다.

디지털도서관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방학독서교실, 독서회와 독서토론회 등을 열고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평



북구디지털도서관 열람실

생교육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의 달과 도서관 주간 등을 통해 서평을 제공하고 추천 도서를 안내하는 등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 문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동화 속 주인공이 되다, 화명도서관

통유리 건물 위, 둥그렇게 또 하나의 작은 건물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화명도서관의 외관은 마치 우주 기지국을 연상케 한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이 도서관은 어린이 열람실과 자유 열람실,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영화상영 및 각종 문화행사를 위한 시청각실, 그리고 정보화 강좌를 위한 정보화교육실 및 교양강좌실과 독서토론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10년 개관 이후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화명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방학 독서 교실과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학 교실과 컴퓨터 강좌 등을 통해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

나 배움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서평 제공 및 추천도서안내 등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진흥 활동과 독서문화 운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독서회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명도서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진행된 증축공사 후에는 유아자료실 내부에 동화구연체험관이 생겼는데, 이곳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만든 체험형 동화구연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대형 스크린의 가상현실 이미지를 통해 실제로 동화 속 배경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몰입도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재능기부자들의 동화구연이 더해져 체

힘은 더욱 생생해진다.

이 멋들어진 도서관의 이용자를 유혹하는 것은 화명도서관 바로 옆에 위치한 화명장미공원이다. 하늘을 천장 삼고 햇별을 전등 삼아 독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일 테다.

층계마다 쌓인 지식의 보물들, 금곡도서관

금곡동은 거주 밀집 지역이라 다른 곳과 비교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북구는 화답했고 그 결실로 마침내 2016년 9월에 금곡도서관이 개관했다.

금곡도서관 정문으로 들어서면 북구희망터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2층의 어린이자료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능동적 공간이다. 장난감 집에 숨거나 책꽂이 안에 들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진 어린이자료실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꼭 맞춘 공간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장롱 안에 들어가 본 기억이 있듯, 어린이들은 작은 곳에 숨으려는 경향이 있음에 착안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어린이자료실 내부 북 스텝



금곡도서관 어린이자료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한 북 스텝에는 새로 발간되는 책이 비치되어 있고 3층과 4층에는 종합자료실이 있다. 자료실의 계단이나 소파에 앉으면 창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 독서의 운치를 더한다. 지식의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료실 한 켠에는 큰 글씨의 도서를 비치해 두었고, 취업정보코너와 낭송실도 갖추고 있다.

5층에는 도서관 사무실과 자유열람실이 있는데 자유열람실은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하에는 공연과 문화강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옥상에는 아담하게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곳, 맨발동무도서관

우리 동무 모두 모두 맨발 동무.
풀밭에 모래밭에 맨발 동무.
손을 잡고 나란히 맨발 동무.

우리 동무 모두 모두 맨발 동무.
강아지도 송아지도 맨발 동무.
걷고 뛰고 노래하고 맨발 동무.

권태웅 시 <맨발 동무>

2005년 7월 개관한 맨발동무도서관은 북구 지역의 여타 도서관들과 달리 사립도서관이다.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꿈꾸며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과 어린이책시민연대의 서부지회 회원들이 건립을 추진했고, 마을 주민들이 이에 십시일반 뜻을 보태 세상에 나온 공간이기 때문이다. ‘맨발 동무’는 권태웅 시인이 쓴 동명의 시에서 따온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입구의 벽면을 알록달록 수놓은 후원자 명패를 보면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공간인지 실감하게 된다. 현재 위치로 이전한 건 2010년인데, 당시 126명의 마을 사람들이 보자기에 책을 싸고 수레를 끌고 이사를 도왔다. 낡은 책을 보수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도 주민들이다. 눈길 닿는 어느 한 군데도 주민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다.

맨발동무도서관은 그 이름처럼 누구나 맨발로 들어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다. 책상에 앉아서, 계단에 걸터앉아서, 제집인 양 엎드려서 책을 읽는 아이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만화방’은 물론, 다락방에서 그림동화를 읽을 수 있는 ‘재미난 다방’도 항상 인

기다. 나만의 공간에 숨어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무집도 있다. ‘이야기방’에선 책 읽어 주기, 옛이야기 들려주기, 빛 그림이나 영화 상영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소소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구의 도서관들은 하나같이 독특하다.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는 이들이라면 북구 도서관 투어를 한번 해보길 권한다. 지식과 낭만을 고루 갖춘 북구의 도서관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 **구포도서관** : 북구 백양대로 1016번다길 43 / 051-330-6300
- **북구디지털도서관** : 북구 은행나무로 26 / 051-341-1932
- **화명도서관** : 북구 화명대로 12번길 59 / 051-309-6481
- **금곡도서관** : 북구 효열로 203번길 34 / 051-309-6184
- **맨발동무도서관** : 부산 북구 양달로 64 / 051-333-2263